

ESG를 실천하는 공사 경영, 농민과 함께 대비하는 미래사회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되는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중심 이동.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내포하는 'ESG'의 근원적 개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004년, 유엔글로벌 콤팩트(UNGC)가 스위스 정부와 함께 발의한 「Who Care Wins(누가 이기는가)」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

어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06년, 기업의 ESG 여건을 투자 의사 결정 등에 반영토록 하는 UN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통해 구체화되는 등 ESG는 시대를 거치며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특히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환경문제를 간과해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하였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빈번한 산불,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류가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에 직결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 더 이상 ESG를 간과할 수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사랑 Green가치2030'을 ESG경영 비전으로 선포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환경문제(E)와의 깊은 관

련성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 및 초강력 태풍 등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는 저탄소 에너지시설을 갖춘 농민, 어민,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지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재생에너지 사업 개방·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2023년, 온실가스 5만tCO₂의 감축 효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환경변화에 대한 공사의 관심과 다각적 노력은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 환경 부문 2년 연속 수상 및 '2023년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수상 등을 통해 그 공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사회(S)분야 중 안전 부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공사 사업 현장은 약 1,500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공사는 언제·어디서든 안전 관련 교육이 가능한 카카오톡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스마트 안전모 도입을 통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카메라를 활용,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전국 단위 저수지 현장 맞춤형 행동매뉴얼 개선을 통해 국무총리상을 수

상하는 등,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을 쏟고 있다.

한편, 공사는 민간기업(삼성전자)과의 협력(G)을 통해 도서지역 등 물 소외지역에 기업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만큼을 환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는 완도군 등에 영구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용수 재이용을 통한 저수량 확보로 고질적인 가뭄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급수를 바탕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業과 연계한 다각적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흐름을 같이하고자 하는 공사의 경영철학이 그대로 사업에 반영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재무적 관점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한 시대가 되었다. 환경과 사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사의 성장성이며 존재 이유가 되었다.